

NEWS & NEWS

치과의사 보건소장 탄생

치과계에서 처음으로 유명아씨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월 9일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유소장은 보건소 사업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고 저소득층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치료보다 예방사업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소장은 79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82년 1월부터 17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치과과장으로 재직하다 의사출신을 제치고 이번에 서기관급인 보건소장에 승진하게 됐다.

보건소장으로서 치과의사가 취임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로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겨 의미가 크다.

제9회 정기이사회

지난 1월 12일 치협회관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 정관 제23조 대의원수배정 및 선출방식'에 따라 지난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의원수 배정을 확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종합학술대회 개최의 건과 관련, 정상적으로는 2천년에 개최하게 될 종합학술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열기로 하고 이같은 결정사항을 대의원총회에 상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대의원총회를 맞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으로는 김기혁, 이수인, 송요선, 함수만, 장계봉씨 등 5명을 선임했다.

신년교례회 개최

지난 1월 1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는 김찬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섭, 황규선, 서상목, 김영환 등 여야 의원, 5개 의료단체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내외빈 참석으로 크게 성황을 이뤘다.

교례회에 참석한 황해순 대의원총회 의장은 신년인사에서 구강보건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모든 회원이 동참하여 치과계 역량과 지식을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회원의 단결을 호소했다. 또한 상수도불소화 반대론자의 저항에 대해 언급하며 안전성은 물론 효과면에서 탁월하다고 인정된 불소화의 학문적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김정균 명예회장, 윤희렬 고문, 지헌택 고문, 대의원총회 황해순 의장, 최광철 부의장, 한국치정회 주낙림 회장 등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